

담양군,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삼만지구' 최종 선정



악취 및 환경오염 심각 지역...총사업비 150억 투입 2027년까지 주요 유해시설 정비·재생 사업 추진

담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지구 3차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무정면 봉안지구 선정에 이은 쾌거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 이행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업으로 마을 내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마을 주민들을 위한 쉼터·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담양군 담양읍 삼만지구로, 2000년 설립된 유기질 비료공장으로부터 악취 및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다. 2020년 폐업 이후에도 환경오염 및 마을 경관

훼손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담양군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50억 원(국비 75, 도비 22.5, 군비 52.5)을 투입해 주요 유해시설(계사, 퇴비사, 관리동, 저온 창고 등) 정비 및 재생 사업(스마트 원예 체험실습장, 공공육묘장, 공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삼만지구 일원 유해시설을 정비해 쾌적한 농촌 공간을 조성,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장성군 “코로나19 방역 금물... 방역대응 강화”

장성군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락에도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기로 했다. 고령 주민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방역대응 강화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됐다.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변화는 ‘비용 지원’이다. 중증환자 입원 치료비가 ‘일부 지원’으로 바뀌고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이 종료됐다.

의료기관 코로나19 검사비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응급·중환자실 환자에 한해 20~50% 지원한다.

그밖에 역학조사와 격리도 실시하지 않으며, 감시체계 역시 기존 전수조사 방식에서 일부만 조사하는 ‘표본감시 양성자 조사’로 완화된다.

감염병 등급에 따라 지원 및 감시 수준이 하락했지만 군은 고위험군 주민의 감염 예방을 위해 선제적 방역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장성군은 요양병원,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시설 등 지역 내 감염취약시설 2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다. △방역 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여부 △확진자 분리 및 환경 소독 △면회 및 방문 제한 규정 등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한다.

장성=김수권 기자

구례군, 제4회 푸른 하늘의 날 (9월 7일) 기념 캠페인 추진

구례군은 ‘푸른 하늘의 날(9월 7일)’을 맞아 9월 8일 구례 5일시장에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푸른 하늘의 날’은 2019년 9월 기후 행동 정상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지정된 기념일로, 유엔(UN) 공식 기념일이자 국가기념일이다.

구례군은 대기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실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맑은 공기를 위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적정 에너지 사용 ▲회화용품 사용 줄이기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군민이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푸른 하늘을 만들기 위한 일상 속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곡성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양수발전소 유치 결의 산발 같은 재난 발생 시, 저수된 물 활용 산발 예방·산림 보호 이점 강조

곡성군이 지난 7일 곡성 문화체육관 앞에서 곡성의용소방대원 500여 명이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곡성의용소방대연합회는 산발과 같은 재난 발생 시, 양수발전소의 저수된 물을 활용해 산발을 예방하고 산림을 보호하는 큰 이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곡성군 양수발전소 유치 범군민 추진위원회와 함께 양수발전소 유치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양수발전소 유치 의지를 보여줬다.

곡성군은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감소 및 경제 저성장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국책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양수발전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한국동서발전과 업무협약을 맺고 양수발전소 유치신청서를 전달한 바 있다.

곡성군 양수발전소 유치 범군민 추진위원회의 최성문 위원장은 “항상 군민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용소방대원분들이 곡성군의 양

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11월에 사업대상자 선정까지 범군민 유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양수발전소는 전력 수요에 따라 하부 저수지와 상부 저수지 사이에서 물을 움직여 발전하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질오염이나 소음 등의 환경 문제가 적다. 또한 발전량 조절이 쉬운 편이고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친환경 발전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

양수발전소가 유치될 경우 곡성군에는 국비 1조 원대의 양수발전 건설사업비가 투자돼 지역경제를 부양하고 지역발전사업비와 지방세 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곡성군 관광벨트 산업과 연계하여 체류형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곡성군민들은 양수발전소 유치를 염원하고 있다.

곡성=양해영 기자

“건강에 좋은 나주배 효능 알린다”

나주시, 빛가람동 소재 동신대 혁신융합캠퍼서 14일 학술심포지엄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전라남도 나주시가 추석 대목을 앞두고 건강 기능성 과일로서 나주배의 효능을 집중 조명해 소비 촉진을 도모한다.

나주시는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빛가람동에 위치한 동신대학교 혁신융합캠퍼스 2층 대회의실에서 ‘배(梨) 건강 기능성 성분과 효능’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나주시가 주최하고 전남대학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광주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도시소비자단체와 우리한국배연구회, 배연구회나주시연합회, 나주배유통농협 등 관계 기관 관계자, 배 농가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선 배에 함유된 건강 기능성 성분 및 효능을 연구해온 대학 교수와 산·학·연 전문가의 주제 발표, 토론 등을 통해 배 소비 촉진과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주제발표(발표자)는 ‘명품 나주배 만들기’를 위한 배 산업 육성 방향(최춘욱 나주시 배유통유통과장), ‘배 산업 활성화 방안’(윤종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예경제연구실장), ‘배 품종과 소비, 배 자원 활용 가능성’(송장훈 배연구소 연구관), ‘우리 배가 가진 건강기능성 물질’(문재학 전남대 교수), ‘음식에서의 배 활용’(노희경 동신대 교수) 순으로 진행된다.

발표 이후에는 이상현 전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나주배 소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종합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본초강목(本草綱目), 동의보감(東醫寶鑑) 등 한의서에 기록된 배 효능에 따르면 기관지 장애개선, 숙취 제거, 비만 해소, 발암물질 배출, 동맥경화·자궁경부암 예방, 미백 등의 효과가 있다.

전남대 문재학 교수팀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배가 가진 건강 기능성 물질인 알부틴, 클로로제닉산, 말락시닉산 등 구체적인 효능과 과실 함유량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배 섭취에 따른 발암 유발 물질의 체외 배출 촉진, 폐종양세포 감소 연구 및 시험 결과와 체내 알콜 분해 효과 등에 대해서도 조명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배가 가진 건강기능성 성분과 그 효능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확보는 물론 소비 촉진을 통한 나주배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주시장 인증 품질보증제, 성장촉진제 무(無)처리 재배면적 확대, 고품질 신 품종 배 생산단지 및 수출전문단지 육성 등을 통한 전국 최고 품질의 나주배를 생산해 내수 시장, 수출 물량을 확대하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명품 과일 브랜드로 육성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나주=송준표 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관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